

#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올해 첫 시행

### 국세청, 23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모바일 앱으로 신청

### 제때 신청 못해 지원혜택 줄어드는 불이익 방지 위해 도입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월1~31일) 이전에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오는 23~30일까지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제(ETTC)의 경우 단독 가구는 연간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간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간 2500만원 미만인 근로



둘째까지 거뜬한 부가부유모차 장만하세요 (주)광주신세계는 오는 22일까지 1층 행사장에서 대물림이 가능한 만큼 가볍고 견고한 네덜란드 유모차 '부가부 페어'를 진행한다. 부가부는 둘 이상의 아이까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새시와 같은 일체형 부품의 경우에는 내구성 있고 수명이 긴 소재로 제작하고 구조상 마모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따로 분리해 추후 손쉽게 부품을 교체하거나 고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와 자영업자가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다. 그러면 최대 85만~250만원을 지급 받는다.

자녀장려금제(CTC)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하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자녀수는 제한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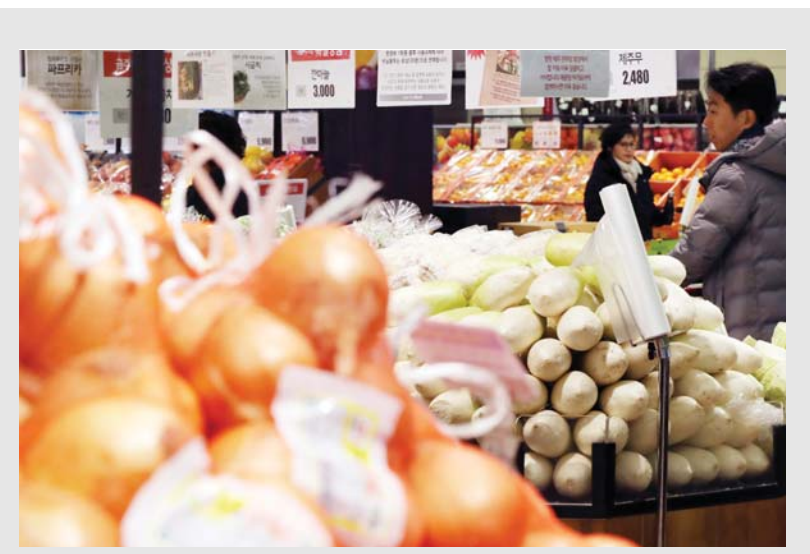
이번에 실시하는 사전예약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는 수급대상자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때는 장려금 신청액의 90%만 지급한다.

사전예약 신청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스스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약 대상자가 아니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며 "장려금 사전예약으로 수혜계층의 정기신청은 증가하는 한편 5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불편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 '한파 끝' 농산물값 진정세

### 소비자물가 올라 생산자물가는 제자리 수준

한파의 영향으로 '경종' 뛰던 농산물값이 지난달 진정세를 되찾았다. 다만 소비자물가가 올라 생산자물가는 제자리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2010=100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4.07로 전월(104.04)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

25%), 피망(-47.2%), 풋고추(-26.6%) 등 농산물 가격이 0.4% 내렸다. 그러나 축산물과 수산물 은 각각 0.5%, 1.0%씩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112.02로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음식점 및 숙박이 전월보다 0.3% 올라 상승세를 견인했다. 금융 및 보험(0.1%), 부동산(0.1%), 사업서비스(0.2%) 등도 올랐다. 운수는 0.2% 하락했다. 공산품(98.77)은 제1차 급속제품(0.6%)은 오른 반

농산물 출하량 증가... 딸기 25%, 피망 47.2% 내리

서비스 물가는 0.1% 상승...음식점 및 숙박 견인

타내는 지표로 소비자물가를 선행한다. 지난 1월부터 한파의 영향으로 농산물값이 오른 탓에 두달 연속 상승했으나 지난달 주춤해진 것이다.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서는 1.4% 올라 1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날씨가 풀리면서 농림수산물 물가는 123.79로 전월보다 0.1%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상승세로 전환한 뒤 1달 만에 떨어진 것이다. 이는 농산물 출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품목별로 딸기(-

면 전기 및 전자기기(-0.6%) 등이 내려 보합을 나타냈다. 전력, 가스 및 수도는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한편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원재료와 중간재, 최종재 등 가공 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하락했다. 국내 출하의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한 총산출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0.2% 내려갔다.

## 에어서울, '다낭~인천' 편도 1만700원 판매

에어서울이 다낭 신규 취항을 기념해 19일부터 다낭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항공운임 1만700원 깎자 특가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에어서울은 5월 18일부터 베트남 다낭에 신규 취항한다. 이를 기념해 지난 16일부터 인천~다낭 항공운임 2만9900원(편도 기준) 특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추가 특별 할인가로 취항 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다낭에서 인천으로 오는 편도 항공편을 항공운임 1만700원에 판매한다.

이번 특별가는 19일부터 에어서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웹에서 5월 19~21일 출발편에 대해 다낭~인천 편도 조회로 구매할 수 있다. 제세공과금을 모두 포함한 총액은 3만4300원이다.

뉴스1

##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X' 언제 출시... "첫 공개 내년초, 상용화 2020년"

중 화웨이 11월 공개 목표  
삼성도 6월 설계 확정 이후  
내년 초 파일럿 제품 생산  
높은 가격 등 시장성 문제  
내년초 출시 갤럭시10도 겹쳐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접을 수 있는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 '갤럭시X(가칭)'의 출시가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화웨이가 오는 11월 공개를 목표로 폴더블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고, 2020년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애플 아이폰의 출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연스레 관심은 삼성전자에 쏠린다.

삼성의 경우 이미 기술력은 갖추고 있어 시제품 첫 공개는 내년 초에라도 가능하지만 가격 저렴화 등 시장성까지 확보하려면 본격적인 상품 출시에는 애플과 비슷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프로젝트 밸리(Project Valley)'라는 코드명으로 폴더블폰을 개발해 오고 있고, 제품명은 '갤럭시X'는 이미 지난해 초 상표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오는 6월 최종 디자인과 설계를 확정하고 내년 초 파일럿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 완공 양산은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와 비슷한 시기인 2020년경으로 추정된다.

이미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폴더블폰의 본격 시판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높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최신폰 아이폰X가 높은 가격 때문에 판매량이 부진했던 것처럼 폴더블 스마트폰의 시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부장 사장은 CES2018 기자 간담회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시 일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는 "가능한 빨리 출시하고 싶지만 제대로 된 물건을 내놓겠다는 생각"이라며 "사용자경험(UX)이 상용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윤러 내년 초 폴더블폰이 아닌 형태의 '갤럭시S10'의 출시가 예정

돼 있기 때문에 폴더블폰의 출시를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폴더블폰은 수년 전부터 '내년에 출시될 것'이라는 식의 관측이 이어지면서 업계에선 '내년폰'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면서 "폴더블폰에 신중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 제품은 '내후년폰'이라고 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폰 시장 상황이 예전 같지 않는데다 시장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량 생산할 경우 대한 리스크가 크다"면서 "소비자들이 폴더블폰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선제적 개발 등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